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2년 12월 03일
(월요일)

북부신문 5면

강북구의회 **김용욱** 의원

5대 교육발전이 이어 6대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

주민 위한 민원해결 우선순위, 때론 “능력부족” 인간미 보여

강북구의회 김용욱 의원(민주통합, 강북나)은 교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체육교사 출신으로 20여 년간 교직에 있다가 2000년 면목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정년을 십여 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택한 그는 교직을 떠난 후 5년여는 사회에 뛰어들어 사업을 하는 등 교직 생활로 미처 못해본 일들을 했다. 그러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의 권유로 구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다.

“낙선 경험이 큰 상처가 된다”며 가족들이 출마를 적극 만류하기도 하지만 김 의원은 첫 도전에 바로 강북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 정치도 잘 모르면서 구의원에 당선돼 잠시 기쁨을 느꼈지만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답 할까 고민하니 어깨가 무거웠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6대 출마를 결심했을 때도 가족들은 반대하진 않았다. 막내딸은 적극적으로 그

의 재선을 돕기도 했다. 그는 그만큼 의정 활동에 열심히 임했고 가족들도 믿고 인정한 것 같아 뿌듯했다고.

초선인 5대 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교육 현장 경험을 살려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는 교육심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교육발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도 맡으며 나름대로 강북구의 교육 발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교감 출신이기에 더욱더 교육 분야에 애착이 많이 간다는 김 의원. 5대 때는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시간과 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찾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김 의원의 5대 때 화두가 교육이었다면 6대는 생활체육의 발전이 주민 관심사다.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국민이 건강하면 국가도 건강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생활체육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강북구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을 전공한 체육교사 출신답게 5대 때 교육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20여 년 넘게 교육 현장에 몸 담으면서 우리나라는 확신인 듯.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거치면서 김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뒷받침을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평의원로서는 생활체육인들과 구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돕고 싶다고.

구청에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곳에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구청도 함께 공감하게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강북구의 경로당 환경 개선 노력도 해왔던 그는 구청의 예산 지원은 그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해달라는 의미라고 힘주어 말한다. 복지관이면 복지관, 직능단체면 직능단체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

“그 역할에 충실하라고 구청에서도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며 “구의회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구청과 의회의 역할을 설명했다.

예산 이야기가 나오자 정례회를 앞두고 “어려

운 강북예산을 감안해 ‘공 하나라도 나눠 먹겠다’는 정신으로 철저히 검토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구상하는 사업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거나 소외되는 의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며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 민원현장, 속원사업 현장 등을 직접 찾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생각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회는 주민과 소통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

그는 “의원들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지역 곳곳의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 함께하고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천하는 구의원 상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힘으로 선출된 만큼 구의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잘 살아야 강북구가 잘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의원들에게 바람직할까?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대답은 단순명료했다.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그에 대해 행정적인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면 “능력부족이어서 미안하다”며 주민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

주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도와 해결을 한다면 구의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듣게 되는 것도 구의원들. 그런 민원에 대해 “능력부족”이라며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김 의원의 매력. ‘김용욱 스타일’이 아닐까.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의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김 의원은 1954년 전남 곡성군 출신으로 고향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와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으로 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도봉중학교와 태릉고등학교, 잠신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면목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명예퇴직 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강북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과 6대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다.

